

여대생의 흡연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정진홍*, 전은주*, 이정희*, 한지연*, 김영숙*, 원영순*, 서미아***

* 단국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 단국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A Phenomenological Study on Smoking Experience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Jin-Hong Jeong*, Eun-Ju Jeon*, Jung-Hee Lee*, Ji-Youn Han*, Young-Suk Kim*, Young-Soon Won*, Mia Seo***†

* Department of Healthcare, Graduate School, Dankook University,

** Graduate School of Health and Welfare, Dankook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essence and the meanings of smoking experience in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Methods:** Colaizzi's phenomenological method was used. Data were collected by in-depth interviews with six undergraduate female students. Field notes, recording under the subjects' agreement, and telephone interview were also used. **Results:** In the analysis, 131 significant statements, 15 themes, 7 categories emerged. The seven categories were as follows; 'the first smoking for change and adaptation', 'becoming a part of self', 'good friend without any reason', 'a bond with friends', 'gazing with bad eyes', 'unexpected guest without realizing it', 'willingness to smoke more'.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professionals to understand the smoking behavior of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We should consider positive experience toward smoking in young women for considering to plan smoking cessation program.

Key Words: Woman smoking, Smoking experience, Phenomenology, Undergraduate student

I. 서론

흡연은 남성과 여성을 막론하고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식도암, 심장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잘 알려져 왔다. 여성 흡연의 경우에는 이러한 심각한 건강 문제 외에도 유방암(Haines, 2010; Gulyn과 Youssef, 2010; Cook 등, 2009), 자궁암(Jordan 등, 2006; Campaner, Nadais와 Galvao, 2009), 심장 질환(Duwensee 등, 2010; Lakier, 2004) 등의 위험이 더 증가한다. 또한 유산, 출산 중 출혈, 미숙아 출생 등과 같은 요소들은 임신 중 흡연하는 여성들에게 높게 나타나는 문제이며(Manaf와 Shamsuddin, 2008), 신생아 사망의 10%와 저체중아 출생의 20-30%는 임신 중 흡연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wis와 Bosque, 1995; McGinnis, 1993).

이처럼 흡연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여성 흡연율은 결코 감소되지 않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2007)의 보고에 따르면 국내 20세 이상 여성 흡연율은 3.8%이며 이는 2003년도 조사때 보다 0.1% 증가하고 있다. 비록 그 증가폭이 큰 수준은 아니지만 흡연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20대 이상 국내 여성 10명중 4명이 흡연을 하고 있는 현실 태와 흡연율이 감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흡연 예방 계획이나 금연 전략들이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흡연을 지속하는 이유는 주로 환경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가까운 흡연 친구들이 있거나 다른 사람이 담배를 권하는 경우, 여성 흡연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들이다(Manaf와 Shamsuddin, 2008).

교신저자: 서미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단국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전화: 042-550-1272 팩스: 042-550-1264 E-mail: miaseo@dankook.ac.kr

▪ 투고일 10.04.15

▪ 수정일 10.06.28

▪ 게재확정일 10.09.11

한국 여성의 흡연 동기와 행동은 남성과는 큰 차이가 있는데 이는 다른 국가보다 한국에서 여성의 흡연을 보는 시각이 더 부정적이기 때문이다(서경현, 2007; 남인숙, 2003). 우리 사회에서 흡연은 남성들의 전유물처럼 생각되어왔고 여성의 흡연은 하나의 '일탈'로 간주되어왔다(장원정, 2008). 이러한 부정적 시각은 여성의 독특한 흡연과 금연 행동을 야기한다. 마음 놓고 흡연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한국 여성은 카페, 술집, 자신의 집 등에서 짧은 시간 동안 한꺼번에 많이 흡연하는 폭연 행동을 보인다(서경현, 2007). 여성의 흡연은 그 동안 사회적 규범상 용납되지 않는 관계로 표면화되지 않았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 여성의 사회 진출이나 기존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젊은 여성층에서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다(김영숙, 2008). 특히 젊은 여성에게는 흡연이 여성 해방 의식의 표현, 남성권력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옥수와 김계하, 2001; 금지모, 2004).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한국 여성의 흡연 실태(이경미 등, 2000) 및 여성의 흡연 관련 요인 분석(강선아 등, 2009), 흡연과 건강에 관한 연구(Stacey 등, 2008)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적인 연구 중심이었다. 질적 연구로는 젊은 사람의 흡연과 성별(Amos와 Bostock, 2007), 십대 여성 청소년의 흡연 행동 표현(Martinez와 Ribeiro, 2008), 근거이론을 적용한 일부 여대생의 흡연 경험에 관한 연구(김문실과 김애경, 1997)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볼 때 비록 여대생들의 흡연의 실태나 관련 요인, 흡연 과정 등에 대한 연구들은 수행되었으나 그들의 경험을 탐구하는 연구는 수행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여성 흡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하는 여대생들의 경험이 무엇인지, 그들이 흡연을 지속하는 이유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여대생들 흡연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되며 나아가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금연 계획을 수립하는데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현상학적 연구는 살아 있는 경험을 지향하며 그 경험의 의미를 포함하여 구조, 즉 현상의 본질을 밝혀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험'이란 인간의 행위와 행동을 나타내거나 외적 세계를 인식하는 '과정'의 의미로 사용되고 하나의 '결과'로서 축적된 것을 의미한다(Hamilton 등, 2006).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한다. 다양한 경험을 통

해 인생을 배우며 삶의 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신만의 가치관을 형성해 간다. 따라서 경험이라는 말은 내용, 소재, 실제 대상 등 경험 되는 것과 그것이 경험되는 방식을 둘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험의 세계는 현상학적 탐구의 원천인 동시에 대상이 된다(최홍원, 2007).

이에 본 연구는 현상학적 접근을 통하여 한국 문화 속에서 여대생들의 흡연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흡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들의 흡연 경험에 대한 심층적 탐구와 이해는 여대생에 대한 효율적인 금연 전략 개발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탐구자의 경험 성찰

본 연구자들은 현재 보건학과 건강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들로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거나 강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자들은 캠퍼스에서 여대생의 흡연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으며 그들의 흡연에 대한 경험들이 어떠한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흡연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에서 여대생들이 왜 흡연을 할까? 어떤 계기로 흡연을 하게 되었을까? 이들의 의식 속에 있는 흡연의 의미는 무엇인가? 등에 대한 의문은 이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2. 연구 대상자

연구 대상자는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며 흡연하고 있는 여대생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6명의 여대생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흡연 관련 특성을 보면 현재 6명 모두 흡연을 하고 있는 상태로 최초 흡연 시작은 13세부터 20세까지로 다양하며 흡연 기간은 2년에서 9년까지로 나타났다. 하루 흡연량은 1일 5-10개비였으며, 금연은 2명이 시도해 본 경험이 있고 4명은 시도한 경험이 없었다<표 1>.

3. 자료수집

본 연구는 흡연 여대생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콜라지 분석방법으로 분석한 현상학적

<표 1> 연구 참여자 특징

	참여자1	참여자2	참여자3	참여자4	참여자5	참여자6
연령	21	22	21	22	22	21
흡연기간(단위: 년)	5	2	4	5	9	8
하루 흡연량(단위: 개비)	6-7	10	10	10	5-6	10
첫 흡연 연령	16	20	16	16	13	13

연구이다. 본 연구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각 연구참여자별로 6회에서 8회에 걸쳐 개별적인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흡연하는 여대생 중 이미 연구자와 라포가 형성된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에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기꺼이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 다른 대상자는 참여자가 소개한 다른 흡연자를 면담하였다. 여섯 번째 연구 참여자까지 면담하였을 때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도출되지 않고 자료의 포화가 이루어졌다.

초기의 1회에서 2회 면담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그 후에는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은 참여자의 포괄적 진술을 위해 “귀하의 흡연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자료의 누락을 막기 위하여 면담의 모든 내용은 녹음하였으며 녹음 전에 대상자들에게 녹음의 이유 및 기밀유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 면담동안 주요 면담 내용은 현장 노트에 기록하였으며 면담이 이루어진 당일에 녹음 내용을 반복하여 들으면서 현장 노트를 참조하여 참여자의 진술 그대로를 필사하였다. 1차와 2차 면담 후 연구자들은 면담 자료 및 분석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1차 면담자료 중 보충과 재확인 필요한 부분은 추가 면담을 실시하였고 그 외에도 수시로 추가 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보완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콜라지의 자료 분석 과정을 적용하였다. 콜라지의 분석 방법은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속성 보다는 연구 참여자의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참여자로부터 기술된 내용에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진술을 만들어 의미를 구성하

여 주제 묶음으로 범주화 한 후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는 것이다(Colaizzi, 1978). 이러한 분석과정 동안 개인의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연구자간의 논의를 거쳐 연구자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현상을 완전하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5. 방법론적 정확성 확보

본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 방법론을 강의하거나 강의를 수강한 경험이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살아있는 경험을 탐구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잠시 보류하고 배제하는 현상학적 판단증지를 하고자 이에 대해 토론을 통하여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데 있어 연구자간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연구자가 한 자리에 모여 면담에 대한 필사자료를 가지고 의미 있는 진술에 밑줄을 치는 작업과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한 후 각 주제와 범주를 확정하였다. 이러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모든 연구자가 동의하는 범주를 최종적으로 도출하였다. 이렇게 범주화한 분석 결과는 다시 각 대상자들에게 가지고 가서 필사내용이 참여자가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범주로 구분한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분석한 자료를 질적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한 교수 2인이 평가하도록 한 후 논의를 거쳐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6.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참여자의 권리와 보호를 위하여 연구 참여, 면담의 녹음, 면담 기록, 보고서에서의 원자료 제시에 대해 서면 동의를 받았다. 면담 시 참여자의 편의를 위해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 및 장소에서 면담을 시행하여 부담을 최소화 하여 주었다.

Ⅲ. 연구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 참여자들의 흡연 경험과 관련된 131개의 의미 있는 진술을 찾아냈다. 이를 근간으로 35개의 명시된 의미를 도출하였으며 이렇게 도출한 의미를 가지고 15개의 주제를 형성하고 이는 다시 ‘변화와 적응을 위한 첫 흡연’, ‘내 존재의 일부가 됨’, ‘이유 없이 좋은 친구’, ‘서로를 이어주는 끈’, ‘곱지 않은 시선들’, ‘서서히 다가오는 불청객’, ‘좀 더 즐기고 싶은 마음’의 7개의 범주로 축약되었다<표 2>. 참여자들은 흡연을 하게 되면서 담배가 늘 자신과 함께 있어 마치 자신의 일부가 된 것처럼 느끼며 담배를 하나의 개체가 아닌 소중한 존재로 경험한다. 또한 담배는 참여자들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자신과 함께하는 존재이며 이유 없이 좋고 정신적으로 편안함을 가져다주는 친구와 같은 의미로 다가와 담배는 이들에게 곧 자기 자신이 친구가 된다. 참여자들에게 흡연은 사회생활에서도 유의함을 주는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간에는 마음이 통

하고 더욱 친밀감을 느끼며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참여자들에게 흡연이 주는 내면의 충만함이나 사회적 관계의 원활제라는 긍정적인 점이 있는 반면 참여자들은 담배로 인해 부정적인 경험들을 한다.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흡연하는 자신들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질이 나쁘다고 생각하여 주로 사람들을 피해서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흡연을 한다. 또한 가족은 참여자들의 흡연에 대해 알지 못하며 안다 할지라도 거센 반발이 예상되어 가족들에게 흡연 사실을 숨기고자 애쓰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참여자들은 마치 신록의 초록 잎이 하나 둘씩 누렇게 물들어가듯이 건강한 몸이 점점 쇠퇴해가는 신호를 느끼게 되어 불안을 경험하고 담배를 피우게 된 걸 후회하기도 한다. 이러한 부정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에게 담배는 여전히 소중한 자신의 일부이자 언제든지 함께 해주는 좋은 친구이기에 언젠가 임신을 하게 되어 정말 담배를 끊어야하기 전까지는 담배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강하여 흡연을 지속하게 된다.

<표 2> 여대생의 흡연 경험

범 주	주 제	도출된 의미
변화와 적응을 위한 첫 흡연	이전과는 다른 나를 원하다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시작하다
		자유롭고 싶어서 시작하다
		좀 더 감성적으로 되기 위해 시작하다
	또래와 일치감을 가지다	친구가 권해서 피우게 되다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피우게 되다
내 존재의 일부가 됨	늘 나와 함께 있다	늘 내 몸 안에 지니고 있다. 흡연은 마치 물을 마시는 것처럼 자연스럽다
		내 자신의 일부가 된 것처럼 소중한다 담배를 부러지지 않도록 소중하게 다룬다
	소중하다	“그냥 좋다”는 말이 가장 적절하다 기분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좋다 혼자 피워도 좋고 친구랑 같이 피우면 더 좋다
		일상 속에 함께 하다 술 마실 때, 식후에 습관처럼 피운다 아침에 일어나면 담배에 먼저 손이 간다
이유 없이 좋은 친구	정신적인 안정을 준다	기분이 풀리고 위로가 된다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된다 스트레스엔 담배만한 게 없다

범 주	주 제	도출된 의미
서로를 이어주는 끈	말없이도 하나가 된다	흡연하면서 더 친해지고 마음이 통하게 된다
	서로 연결된 느낌이다	소속감이 들고 무리속의 한 사람인 게 뿌듯하다
곱지 않은 시선들	따가운 시선이 느껴진다	남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 본다
		흡연할 때 눈치가 보인다
		질 나쁜 애로 생각 한다
	사람들을 피해서 흡연한다	화장실, 뒷골목에서 피운다
		사람들을 피해서 흡연한다
		가족은 본인의 흡연을 생각도 못 한다
가족들에게 들킬까봐 조심 한다	집에서는 여성스럽게 행동한다	
	냄새가 나지 않도록 조심한다	
서서히 다가오는 불청객	증상들이 나타난다	몸이 좋지 않다
		숨이 차고 빨리 피곤하고 목이 마르다
		아침에 가래가 들끓는다
		침을 뱉고 물을 마시게 된다
	몸이 담배에 길들여지다	끊어 보려고도 하나 마음이 하루밖에 안 간다
		끊기에는 너무 먼 길을 와 있다
좀 더 즐기고 싶은 마음	흡연의 즐거움을 더 느끼고 싶다	담배 피운 걸 후회 할 때도 있지만 지금은 끊고 싶지 않다
		임신 전까지는 계속 피울 것이다

변화와 적응을 위한 첫 흡연

- 이전과는 다른 나를 원하다

참여자들은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외적인 이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다. 다른 여성 흡연자의 흡연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이고 자유로워 보여 자신도 흡연을 통하여 멋과 자유를 가지고 싶어 한다. 또한 흡연을 하면서 뭔가 골몰히 생각하는 듯 한 모습은 참여자들에게 감성적으로 보여 흡연하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킨다.

“중학교 때 골목길 같은데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가 담배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순간 야! 멋지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뒤로 영화 같은데서 여자가 담배피우는 모습 보면 멋있어 보이고 또 담배 피우면 분위기 있어 보이면서 감상적으로 보이니까 나도 한번 피워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담배 피우면 틀이나 규칙 같은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와 보인다고 할까 그런게 그때는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 또래와 일치감을 가지다

참여자들은 또래 관계가 중요한 시기에 친구들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친구들 집단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담배를 시작하게 된다. 다른 친구들의 흡연을 보면서 자신도 피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술자리와 노래방은 친구들과 마음을 나누고 즐거움을 얻기 위한 장소가 되기에 흡연을 시도하기에 좋은 장소가 되고 술의 힘을 빌어 흡연을 시도하게 된다. 첫 흡연이 나쁘지만은 않았기에 향후 흡연을 지속하게 된다.

“처음에 담배 피우기 시작했을 때는 사실 제 의지보다는 친구들이 더 중요했어요. 노는 애들은 꼭 피워야만 그 속에서 어울릴 수가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과 술 먹고 노래방을 갔는데 다른 애들이 피우는 거 보면서 나도 피우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술 김에 첫 담배를 피우게 되었고 기분이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내 존재의 일부가 됨

- 늘 나와 함께 있다

참여자들은 담배를 나와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대상으로 여기며 늘 담배를 몸에 지니고 소중한 게 여긴다. 자신이 힘들 때 또는 고민이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또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늘 함께 있어줌으로써 담배는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존재의 일부로 인식되며 늘 자신과 함께 있기 때문에 흡연 할 때의 느낌은 그 무엇보다도 편안한 것으로 인식되어진다. 자신의 몸 안에 다른 이물질이 빨리 들어가는 것이 아닌 마치 호흡을 하여 산소를 마시듯이 또는 물을 마시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이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늘 저하고 함께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담배는 언제든지 저하고 있어요. 제가 힘들어 할 때도 저랑 함께 있고 사람들하고 즐거울 때도 저랑 함께 있어요. 이제는 저하고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고 나 할까요. 내 몸 안에 그냥 연기를 담아두고 싶고 내 몸을 연기로 채우고 싶고...” “마치 물을 마시는 느낌, 공기를 마시는 느낌...맑은 공기를 마셨다는 느낌...뭐 그런 거...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피워요. 연기를 뿜는 그 순간의 느낌은 마치 맑은 공기를 마신 느낌..머리가 개운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사람들이 왜 담배를 피우는가 물어보면 그냥이라고 답하는 게 가장 맞는 말인 것 같아요.”

- 소중하다

담배는 참여자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대상이 된다고 하며 담배를 다루는 마음이 소중한 자기 자신을, 자기의 분신을 다루는 것 같다고 말한다. 이에 담배를 다룰 때에도 부러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담배에 불을 붙이는 순간에도 불이 꺼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담배에 불을 붙이는 그 순간엔 마음이 경건해져요. 조심스럽게 소중하게 다루게 되고..만약 누가 담배를 뺏거나 부러뜨리게 되면 되게 화가 나죠. 마치 내 몸을 때린 것 같고 제가 가장 아끼는 것을 망가뜨린 것 같고 함부로 대할 것 같고...”

이유 없이 좋은 친구

- 그냥 좋다

담배는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존재의 일부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또 좋은 친구로 다가오기도 한다. 흡연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좋다는 것이 참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참여자들에게 흡연은 기분이 좋을 때에도 좋은 친구가 되고 기분이 나쁠 때에도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 또한 흡연하는 친구들과 있을 때에는 더 친밀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해준다.

“아침에 눈 뜨면 우선 담배에 손이 가요. 베란다에 나가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목이 연기를 마시고 싶은 느낌...그러면 잠이 확 깨고 너무 상쾌하고 기분 좋고 뭔가 하루가 좋을 것 같고... 수업 중간에 나와서 친구들과하고 나와서 피우면 서로 마음이 통하고..담배 갑을 보면 그냥 피우고 싶고 그냥..그냥 좋다는 게 가장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 일상 속에 함께 하다

흡연을 하는 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다. 참여자들은 혼자 있을 때는 외롭고 쓸쓸해서 흡연을 하고, 사람들과 술 마시면 더욱 많이 피우고, 식사 후 습관적으로 피게 되며, 스트레스 받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저절로 손이 가고, 안 피우면 불안하고 자꾸 생각이 나며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손이 가는 담배는 습관화가 되어 어느새 삶의 일부분이 된다.

“밥 먹고 3분 안에 ‘식후 땡’으로 피우고 버스 기다리다가 지루하니깐 피우고...맹송 맹송 할 때 피우고...그렇게 습관적으로 피우게 돼요. 술 먹을 때 가장 많이 피고 식사 후에 주로 담배를 많이 피워요. 밥 먹고 났을 때 커피 마시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피우게 되는 것 같아요.”

- 정신적인 안정을 준다

참여자들에게 흡연은 학업이나 일상의 삶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요인이 된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흡연은 그 무엇보다도 좋은 정신적인 안정제로 작용하며 사람이 줄 수 없는 큰 위안과 도움을 주게 된다. 흡연은 좋을 때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나 정신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요인이 된다.

“스트레스 받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어디 풀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제 손에 담배가 있어요. 담배는 좋을 때 피우면 더 좋고 뿌듯하고 날아갈 것 같고 화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피우면 위로가 되고 마음이 진정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교수님한테 혼나고 났을 때 담배 피우면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요. 시험을 망쳤어도 담배 한 대 피우고 나면 괜히 그냥 안도감 느껴지고 우울할 때 또 힘들 때 누구보다도 담배가 가장 가까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사실 담배만한 게 없어요”

서로를 이어주는 끈

- 말없이도 하나가 된다

참여자들에게 담배는 흡연하는 동료, 선배와 후배를 서로 이어주는 끈으로 작용한다. 흡연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고 나아가 더욱 친밀해질 수 있다. 참여자들은 흡연자끼리 주고받는 용어를 통해서 동질감을 느끼며 서로를 이해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더 친밀감을 경험한다.

“흡연하는 친구가 담배를 권하면 나를 챙겨준다는 느낌이 들고 불을 붙여주면 되게 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담배를 피우면 소속감을 주고 어떤 면에서는 동질감을 느끼고 뭔가 ”통한다“는 느낌을 가지게 돼요. 흡연자끼리 통하는 용어 “식후 땡” “모닝” “길땡” 뭐 그런 말 쓰면 더 친근감이 느껴지고 재미가 있어요.”

- 서로 연결된 느낌이다

함께 흡연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반갑고 비록 말을 하지 않아도 함께 흡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통하고 마치 하나가 된 것 같은 서로를 다 이해할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며 이에 따라 더 대화를 나누게 되고 친밀해지는 경험을 한다. 또한 친해지고 싶을 때 서로 담배를 권하게 되고 원하는 것을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좋다고 한다.

“사람들이랑 같이 피우면서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담배피우면서 가만히 있어도 서로 연결된 느낌을 받아요. 사람들 만나서 그냥 있으면 민망하고 멍송 멍송 할 때 담배를 피우면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진솔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담배 하나로 인해서 얘기도 더 하게 되고 더 친하게 지내요.”

곱지 않은 시선들

- 따가운 시선이 느껴진다

참여자들은 여성이라서 흡연하는데 따르는 사회의 따가

운 시선을 느끼고 남성은 그렇지 않음에 반해 여성이라서 당하는 억울함을 경험한다. 이 사회에서 남성 흡연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왜 여성은 편견적인 시각을 갖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가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된다.

“길거리 같은 공공장소에서 피우는 건 남자들보다 사실 눈치가 좀 많이 보이긴해요. 사람들 시선이 여자가 담배 피운다고 하면 이상한 시선으로 보고 재는 질이 나쁜가 보다 그렇게 되레 짐작하고...곱지 않게 보고 그래서 억울하죠.”

- 사람들을 피해서 흡연한다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여자가 담배 피면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경험 하면서, 차별적인 시선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나 아직까지는 어른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두렵고 공개적인 흡연에 대한 부담감으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몰래 피우고 되도록이면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서 흡연을 한다.

“학교에 있을 때는 주로 화장실이나 복도에서 피우고요. 바깥에 사회에 있을 때는 건물사이 골목 있는데 같은 그냥 밀폐된 공간을 찾아요. 그리고 주위의 시선 때문에 항상 빨리 피워요. 술집, PC방이나 학교 화장실에서 피우기도 하고 기숙사 골목에서 피우고 또 남에게 방해되지 않는 곳에서 피워요. 술집에서 방해 없이 많이 흡연하고 되도록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서 흡연을 하는 거죠”

- 가족들에게 들킬까봐 조심한다

흡연사실은 가족에게는 절대 비밀이다. 부모님이 흡연 사실을 아는 것은 참여자들에게는 두려운 일이며 집에서는 흡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수를 뿌리고 양치질을 하며 행동을 의식적으로 조심하게 된다.

“가족은 아무도 모르고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집에서는 마음대로 필수 없는 게 부모님들과 식구들이 전혀 몰라서 숨어서 피워야 할 경우도 있어요. 집에서 제가 담배 피우는 것 알면 전 죽어요. 어떻게 보면 집하고 밖에서 행동 하는 제 모습이 다른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갈 때는 냄새 안 나게 향수 같은 거 뿌리고... 가식은 아닌데 그렇게 돼요. 집에서는 되게 여성스럽고 바른 말 고운 말 쓰고...부모님 이 아실까봐 겁이 나죠”

서서히 다가오는 불청객

• 증상들이 나타난다

참여자들은 흡연으로 인하여 이전에는 없던 증상들이 나타나고 몸이 점점 쇠퇴하는 경험을 한다. 흡연으로 인한 문제는 신체의 다양한 부위에 나타난다. 호흡이 짧아지고 숨이 차오르고 가래가 끓는 경험들과 목소리가 변하고 옆구리가 결리는 증상들이 나타나고 이리다가 폐암에 걸려 죽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흡연자들도 같은 증상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나타나는 증상들도 큰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에 안도하게 된다.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을 느껴요. 호흡도 짧아지고 조금만 뛰어도 숨이 너무 차고... 특히 자고 일어나면 가래가 들끓어요. 목소리도 남자 목소리처럼 걸걸해져서 여자애들 목소리가 안 나고 옆구리가 자주 아파요. 담배 피우면서 이런 병이 생겼어요. 침도 자주 뱉게 되고 목도 마르고...아직 딱히 큰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에 병원에는 안 가보았지만 담배 피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해요”

• 몸이 담배에 길들여지다

참여자들은 흡연이 건강에 문제를 유발한다는 생각과 흡연으로 인한 바람직하지 않은 습관들을 경험하면서 금연을 시도해보기도 한다. 그러나 마음과는 달리 몸이 흡연을 갈망하게 되고 흡연이 주는 좋은 점 때문에 담배를 끊겠다는 결심은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흡연을 하게 된다.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불길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언젠가는 끊을 건데 한번 끊어볼까 하고 담배를 참아보기도 하지만 하루를 참기가 힘들어요. 낮에 참다가도 밤이 되면 다시 혼자 남게 되고 정신적으로 불안해지고 담배 생각만 나고 그러다가 다시 피우게 되죠. 그렇게 끊어보려고 한 게 몇 번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아예 시도조차 안 해요. 실패할 것을 아니까요. 이미 끊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다고나 할까...”

좀 더 즐기고 싶은 마음

• 흡연의 즐거움을 더 느끼고 싶다

참여자들은 금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으나 당장 담배를 끊기보다는 좀 더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다. 흡연

을 즐기고 싶은 이유로는 우선 공부나 취업 등의 현실적인 스트레스 때문이다. 담배 피운 걸 후회해도 끊고 싶지는 않으며, 결혼 전까지는 더 피우고 싶다는 생각으로 흡연을 통한 나만의 즐거움을 더 가지고 싶어 한다. 참여자들은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상황을 ‘임신’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상황까지는 흡연의 즐거움을 더 느끼고 싶어 한다.

“결혼 전에는 끊어야지요. 아기 문제도 있고. 하지만 지금은 끊고 싶지 않아요. 스트레스도 있고... 공부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도 있어서 끊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속 피울 거예요. 결혼 전까지 는요. 아직은 그 시간들을 즐기고 싶어요.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그때는 금연을 할거 예요. 하지만 아직은 나만의 그 시간을 즐기고 싶어요. 조용한 밤에 담배를 피우며 이런 저런 생각을 하는 좋은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IV. 논의

현상학은 인간의 살아있는 경험을 직접적으로 기술하여 인간 행동의 이면에 숨어있는 관념, 느낌, 신념을 연구 대상자의 입장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흡연 경험에 대한 탐구에서 발견된 경험의 본질은 15가지의 주제에 7가지의 범주로 나타났다. 흡연하는 여대생들의 경험은 ‘변화와 적응을 위한 첫 흡연’, ‘내 존재의 일부가 됨’, ‘이유 없이 좋은 친구’, ‘서로를 이어주는 끈’, ‘곱지 않은 시선들’, ‘서서히 다가오는 불청객’, ‘좀 더 즐기고 싶은 마음’으로 분류되었다. 참여자들은 흡연을 하면서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을 동시에 하게 되며 흡연을 지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끊어야 하는지에 대해 양가감정을 가지기도 하나 흡연이 주는 정신적인 긍정적 경험과 대인관계에서의 긍정적 경험은 다른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어 흡연을 지속하게 된다. 남녀 청소년 276명의 자서전적 수필을 통하여 첫 흡연 경험을 연구한 질적 연구(Delorme, Kreshel와 Reid, 2003)에서 여학생들은 흡연을 하면 행복감을 느끼고 이완되기 때문에 흡연을 지속하게 된다고 한 바와 같이 본 연구 참여자들도 흡연이 주는 좋은 경험들 때문에 흡연을 지속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이 언급한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여성 흡연에 대해 사회적으로 제시되는 심각한 증상들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들은 흡연에 대해 낙천적인 태도까지 가지고 있었으

며 현재는 금연을 시도하기보다는 흡연을 즐기고자 하는 욕구들을 나타냈다. Grimshaw 등(2003)은 15세에서 19세 연령의 흡연자 20명을 면담한 결과 이들은 흡연하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금연에 대해서도 낙천적으로 생각하며 원하는 경우에 스스로 금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흡연하는데 있어 타인을 의식하는 불편감 보다는 자기 스스로 얻게 되는 장점과 또래집단들과 연결되는 친밀감의 매체로서 흡연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이 처음 흡연을 하게 되는 이유도 이전과는 다른 멋지고 자유로운 자신의 모습을 원하는 것과 또래 집단에 적응함으로써 그 일원이 되고자 하는 바램에서였다. 이들은 담배를 하나의 개체 이상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담배가 '내 존재의 일부가 되는 경험'과 '이유 없이 좋은 친구로서의 경험'은 담배를 소중한 하나의 의인화된 대상으로 여기고 있으며 필요할 때마다 그 누구보다도 자신과 함께 해주는 존재이며 이유 없이 좋은 친밀한 친구로 경험되고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젊은 연령에서의 금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데 54명의 흡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집단 면담을 실시한 연구(Falkin 등, 2007)에서 청소년들은 금연을 하게 되면 자신들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을 상실하게 되고 이는 또 다른 스트레스로 작용하며 나아가 친구와의 우정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음을 볼 때 본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 흡연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인식하게 된다. 이는 곧 젊은 연령층에 대한 금연을 계획할 때에는 단순히 금연의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이들이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과 아울러 금연과 더불어 가지는 사회적 상실감을 대체할 수 있는 요인들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Denscombe(2001)은 젊은 연령에서의 흡연은 자기 존재에 대한 정체감을 제공하고 자아 이미지를 형성하여 자기 강화와 자기 확신을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담배가 참여자들에게 '이유 없이 좋은 친구'로 경험되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도 담배는 자신과 같이 해주는 대상이 되지만 일상적인 삶속에서 습관적으로 흡연을 하게 되고 흡연을 하면 가지게 되는 정서적 안정감으로 인하여 담배를 더욱 편안한 친구처럼 경험한다. 참여자들에게 흡연은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간 많은 여구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흡연은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중요함이 입증되어왔다(Williams와 Covington, 1997; Parna 등, 2003).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볼 때 어떠한 경험들로 인해서 또래집단이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즉, 흡연은 친구들과 '서로를 이어주는 끈'으로 작용하여 타인과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교류를 하는 매개체로 작용하는데 이들은 서로 흡연자끼리만 사용하는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서로 마음이 통하고 하나 됨을 경험하며 이는 또래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태도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에 소속되는 경향이 있는데 특별히 젊은 여성들의 흡연에서는 친구들의 흡연에 대한 압력보다는 사회적 맥락에서의 친구들의 영향력이 더 중요시되며 이러한 또래 집단들의 정체성은 곧 자아개념의 일부가 된다(Lennon 등, 2005).

참여자들은 비록 흡연으로 인한 이점들로 인해 흡연은 하나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의식하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흡연을 하고 특히 가족들에게 들킬까봐 주의하게 된다. Scheffels(2009)는 비록 서구사회에서조차도 흡연하는 여성들을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이며 쾌락을 즐기고 자신을 통제할 줄 모르는 여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젊은 여성들의 흡연은 이러한 부정적 시각에서 바라보기보다는 그들이 좀 더 강력한 자아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표현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여성 흡연을 금기시 하는 우리 문화에서 자신의 흡연을 가족들에게 터놓을 수 없으며 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음을 경험하여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흡연을 하게 되는 불편감을 감수하면서 까지도 참여자들은 흡연을 지속하는데 이는 흡연이 주는 다른 유익성에 더 크게 끌렸기 때문이다. 이에 은폐되고 있는 여성 흡연의 문제를 노출시키고 사회 인식의 전환과 함께 여성 스스로 흡연 행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시작으로 주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김인숙, 2003).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과 더불어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몸에 서서히 불청객이 찾아옴을 느끼며 건강이 나빠지는 경험들을 한다. 걷거나 땀 때 숨이 차노는 것, 목이 따끔거리는 증상들을 경험하면서 흡연하는 사실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건강문제로 인하여 흡연을 하면서도 심리적 갈등을 가지고 있다는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흡연의 변화기전을 규명한 연구(현명선, 이영자와 남경

아, 2004)에서는 ‘나 자신이 흡연할 때마다 마음이 심란하다’, ‘흡연을 할 때 책임감 있고 이타적인 사람으로 살아갈려는 나의 모습과 모순되므로 갈등을 느낀다’ 라는 ‘정서적 평가’ 기전이 흡연에서 금연으로 돌아서게 하는데 가장 설명력이 높은 기전이라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담배가 주는 유해함 때문에 금연을 시도해보기도 하나 마음처럼 금연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시 습관적으로 담배를 찾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아직은 본인 스스로 금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금연 도움은 받고 싶지 않아한다. 결혼하거나 임신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금연을 해야 하므로 지금은 금연보다는 더 흡연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강한 것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15명의 흡연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 경험을 연구한 결과(McVea 등, 2009) 젊은 연령에서의 흡연은 성인기와는 달리 자신들의 니코틴 의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니코틴 중독 문제는 자신들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간주하며, 금연하기 위해 타인의 조언이나 교육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한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들이다. 또한 14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 3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한 연구(Johnson, 2003)에서 흡연하는 대상자들이 담배를 끊어보고자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모호하고 짧은 순간 동안만 금연 의지를 가지고 있을 뿐이며 ‘군대에 가면 담배를 끊겠다’고 하거나 ‘지금 현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흡연하고 나서 그 후에 금연을 생각 하겠다’, ‘임신하면 끊겠다’라고 말함으로써 현재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금연에 대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금연교육에 대해서도 흡연자들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서 사고, 행동, 태도가 유의하게 변화하지 않아 흡연을 시작한 후에는 금연이 더욱 어려워짐을 알 수 있다(김진구와 신호상, 2002). 본 연구 참여자들은 비록 자신들이 지금은 금연에 실패할지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스스로 금연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하다고 함으로써 현재 금연의 어려움은 부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금연교육에 대해서도 흡연자들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서 사고, 행동, 태도가 유의하게 변화하지 않아 흡연을 시작한 후에는 금연이 더욱 어려워짐을 알 수 있다. 여학생들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흡연에 대한 지식이 높고, 흡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낮을수록 흡연경험을 더 많이 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이경미 등, 2000)를 볼 때 여학생의 금연을 계획할 때에는 지식보다도

태도변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비록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선택할지는 여대생 자신들의 선택이라 할 수 있으나 여대생들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금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보다는 흡연을 예방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고 나아가서는 초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흡연 예방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금연 교육에 대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여대생들의 흡연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시도되었다. 흡연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탐구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변화와 적응을 위한 첫 흡연’, ‘내 존재의 일부가 됨’, ‘이유 없이 좋은 친구’, ‘서로를 이어주는 끈’, ‘곱지 않은 시선들’, ‘서서히 다가오는 불청객’, ‘좀 더 즐기고 싶은 마음’의 일곱 가지 범주를 발견하였다. 참여자들은 비록 흡연으로 인해 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주위의 시선들이 의식되기도 하지만 흡연을 자신과 분리해서 볼 수 없는 자기 존재로 인식하였고 또래집단과 자신을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매개체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현재 자신의 의지로 금연을 실천하기 보다는 미래에 임신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까지는 더 즐기고 싶은 욕구들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여성흡연을 이해하고 이들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금연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즉, 여성들이 흡연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인 의미들을 탐색하고, 사고의 전환을 통해 금연을 실천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해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흡연하는 여성의 경험을 여대생들을 통하여 탐색하였다. 여성의 흡연에 대해서는 비단 여대생뿐만 아니라 좀 더 어린 청소년이나 20대나 30대의 사회에 이미 진출한 여성의 경우 나아가 성인기나 중년기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 경험의 본질을 탐색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와 주제들을 나타낼 것이다. 인간 행위의 의미들이 사회적 문화적인 영향을 받음을 생각해 볼 때 현상학 이외의 다른 질적 연구방법 역시 여성의 금연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들을 제공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선아 외 12명. 여대생의 흡연 실태와 흡연, 자아 존중감, 우울간의 관계 연구. *이화간호학회지* 2009;43:61-7326.
- 금지모. 담배로 부터의 해방과 여성의 해방. *환경과 생명* 2004; 41:156-168.
- 김문실, 김애경. 일부여대생의 흡연경험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1997;27(2):315-328.
- 김영숙, 조현숙. 흡연행태 및 관련요인.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8;25(3):125-138.
- 김옥수, 김계하. 여대생과 직장 여성들의 사회적 지지, 우울, 음주, 흡연에 대한 비교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2001;13(3):363- 372
- 김인숙. 여대생의 흡연 체형[박사학위논문]. 서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3.
- 김진구, 신호상. 흡연자와 간접 흡연자에 대한 금연교육 교과의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 보건학회지* 2002;28(3):26-33.
- 남인숙. 여성 흡연에 대한 성차별적 사회담론. *사회이론* 2003;23: 131-171.
- 서경현. 한국여성의 흡연과 금연에 관한 최신 지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07;12(4):695-713.
- 이경미, 박재용, 한창현. 초등학교 학생의 흡연지식, 태도 및 흡연경험과 가족환경과의 관련 성. *한국환경보건학회지* 2000;13(1): 85-96.
- 장원정. 여성흡연: ‘어디 여자가 감히’ 근대사회에서 왜 여성은 흡연에서 배제되었는가. *민족* 21 2008;92:142-147.
- 최홍원. 문화 교육에서 경험의 재 개념화와 교육적 실천을 위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2007;29:311-345.
- 현명선, 이영자, 남경아. 여자 청소년의 흡연행위 변화기전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2004; 13(3):273-281.
- Amos, A., Bostock, Y. Young people, smoking and gender - a qualitative exploration. *Health Education Research* 2007;22(6): 770-781.
- Campaner AB, Nadais RF, Galvao MA. The effect of cigarette smoking on cervical langerhans cells and T and B lymphocytes in normal uterine cervix epithelium. *International Journal of Gynecological Pathology* 2009;28(6):549-553.
- Colaizzi FU.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Valle R, King M, editors. *Existential Phenom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p. 48-71.
- Cook NR, Rosner BA, Hankinson SE, Colditz GA. Mammographic screening and risk factors for breast cancer.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2009;170(11):1422-1432.
- Delorme DE, Kreshel PJ, Reid LN. Young adults' autobiographical accounts of their first smoking experiences. *Youth & Society* 2003;34(4):468-496
- Denscombe M. Uncertain identities and health risking behavior: The case of young people and smoking in late modernit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2001; 52:157-177.
- Duwensee K, Breitling LP, Tancevski I, Rothenbacher D, Demetz E, Patsch JR, Ritsch A, Eller P, Brenner H. Cholesterol transfer protein in patients with coronary heart disease. *European 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 2010;40(7):616-622.
- Falkin GP, Fryer CS, Mahadeo M. Smoking cessation and stress among teenager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2007;17(6):812-823.
- Grimshaw G, Stanton A, Blackburn C, Andrews K, Grimshaw C, Vinogradova Y, Robertson W. Patterns of smoking, quit attempts and services for a cohort of 15- to 19-year-olds.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2003;29(6):457-464.
- Gulyn LM. Attribution of blame for breast and lung cancers in women. *Journal of Psychosocial Oncology* 2010;28(3):291-301.
- Hamilton S, Combes P, Herring E, Thomas MS. Phenomenology in practice: towards a methodology for a subjective approach. *European Journal of Archaeology* 2006;9(1):31-71.
- Haines RJ. Breast cancer messaging for younger women: Gender, femininity and risk. *Qualitative Health Research* 2010;20(6): 731-742.
- Johnson JL 외 6명. Smoking and adolescence ; narratives of identity. *Research in Nursing & Health* 2003;26(5):387-397.
- Jordan SJ, Whiteman DC, Purdie DM, Green AC, Webb PM. Does smoking increase risk of ovarian cancer? A systemic review. *Gynecologic Oncology* 2006;103(3): 1122-1129.
- Lakier JB. Smoking and cardiovascular disease. *The American Journal of Online* 2004;93(1):8-12.
- Lennon A, Gallois C, Owen N, McDermott L. Young Women as smokers and nonsmokers; a qualitative social identity approach. *Qualitative Health Research* 2005;15(10):1345-1359.
- Lewis KW, Bosque EM. Deficient hypoxia awakening response in infants of smoking mothers: a possible relationship to sudden infant death syndrome. *Journal of Pediatrics* 1995;27(5): 691-699.
- Manaf RA, Shamsuddin K. Smoking among young urban Malaysian women and its risk factors. *Asia Pacific Journal of Public Health* 2008;20(3):204-213.
- McVea K, Miller DL, Creswell JW, McEntarrfer R, Coleman MJ. How adolescents experience smoking cessation. *Qualitative Health Research* 2009;19(5):580-592.
- Martinez JAS, Ribeiro CRO. The search for equality ; Representations of the smoking act among adolescent women. *Revista Latinoamericana De Enfermagem*, 2008;16:640-647.
- McGinnis JM. Actual causes of death in the United State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993;270(18):2207-2212.
- Parna K, Rahu K, Fischer K, Mussalo-Rauhamaa H, Zhuravleva I, Umbleja T, Rahu M. Smoking and associated factors among adolescents in Tallinn, Helsinki, and Moscow: a multilevel

analysis.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Health* 2003;31: 350-358.

Scheffels J. Stigma, or sort of cool: Young adults' accounts of smoking and identity. *European Journal of Cultural Studies* 2009;12(4): 469-486.

Stacey AK, Meir JS, Bernard AR, Graham AC. Smoking and smoking cessation in relation to mortality in women.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008;299(17):2037-2047.

Williams JG, Covington CJ. Predictors of cigarette smoking among adolescents. *Psychological Report* 1997;80:481-482.